

문학치료관점에서 본 유배시조 - 『금강영언록』을 대상으로

강성주*

차 례

1. 서론
2. 안동 김문의 삶과 금갑도 유배
3. 『금강영언록』 속 치유의 과정
4. 유배시조의 문학치료적 효과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금강영언록』의 연구 소재 시조를 대상으로 시조 창작의 치유적 효과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김이익의 가문적 배경과 금갑도 유배의 삶을 살펴보고,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김이익의 유배시조를 재해석하여 정조 승화와 유배라는 상흔을 회복하는 과정을 살폈다.

김이익(金履翼, 1743~1830)은 정순왕후와 벽파에 의해 정조를 기망했다는 죄목으로 1800년 12월 25일 진도 금갑도에 정배된다. 이후 1802년 8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 진도 금갑도에서 시조집 『금강영언록』을 창작하였다. 『금강영언록』은 이전 이상 유배시기 창작한 『관성잡록』과 달리 작품의 주제가 섞여 제시된다는 점에서 일련의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배치한 것이 아닌 창작의 순서대로 수록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소재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로 보아, 각각 단절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텍스트이지만,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소재를 통해 묶이게 되면 하나의 계기적 서사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전체 작품 중 연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문학치료 관점에 따라 ‘진단 단계-해소 단계-회복 단계’로 분류하고 갈등과 치유의 양상이 드러남을 검토하였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나아가 『금강영언록』은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진단과 해소의 단계를 거쳐 회복의 단계까지 이르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작품 속에서 단계별 치유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문학치료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이익이 『금강영언록』 창작을 통해 문학치료적 과정을 체험했음을 보여주는 것에 더 나아가 유배시조의 창작이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김이익, 금강영언록, 문학치료

1. 서론

유배는 역사 속에서 죄인에게 내려진 형벌이라는 인식이 강해,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주로 부정적인 시각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배인과 그들의 유배 생활을 새로운 관점에서 탐구함으로써, 이를 문화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배에 관한 기존 연구의 목적이 유배 상황에서 역사적 가치를 찾아내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근래의 연구는 유배가 가진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그 활용 분야를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추세는 역사 관련 분야 외에 여러 문화산업 분야에서 유배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배시조에 대한 연구는 작품 분석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유배시조 연구 외연을 확장시키고 문학치료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시조 작자들은 작품의 효용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음의 작용에 근거한 시의 기능부터 사회적인 효용성까지 다양한 측면을 시조 속에 녹여냈다. 가령, 「도산십이곡」의 발문에서 이황은 온유둔후(溫柔敦厚)에 바탕을 두고 성정론적인 구도에서 마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더불어 시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말하였으며, 『대동풍요』의 서문에서 홍대용은 환흔감발(歡欣感發)을 통해 다른 어떤 과정이 부가되지 않

은 천리를 동반한 자연의 발출 구조 속에서 시조를 긍정하고 있다. 홍대용의 이러한 논의는 종래의 성정론적 근거에서 벗어나 인위나, 윤리적 가치의 기준이 되는 선악을 판단의 기준점에 두는 것이 아닌 인간도 자연과 같은 발출 구조 그대로 천리를 구현함을 이야기하고 있다.¹⁾ 이는 내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문학 창작이나 수용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 곧 카타르시스적인 모습을 보인다.

문학치료학 역시 “문학의 본질적인 기능이 심리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것”²⁾과 더불어 카타르시스를 통해 주체 내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평형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상실의 상태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조 연구에서 이러한 문학치료에 주목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며, 그 중 특히 김상진의 논의가 주목된다.³⁾ 김상진은 변학수, 정운채와 유종호의 논의를 발전시켜 문학치료를 시조 분석의 틀로서 체계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⁴⁾ 다만, 김상진이 원용한 정운채의 서사개념은 이론적 모호성을 띄며,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에서 드러나는 갈등과 해소의 양상은 비판적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⁵⁾ 반면 유배시조는 유배라는 구체적인 현실의 맥락 속에서 창작되었기에 보다 문학치료에 연구에 유효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금강영

1) 박미영, 『한국시가론과 시조관』, 박이정, 2006, 211쪽.

2) 정운채, 『문학 치료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치료사, 2006, 29쪽.

3) 김상진, 「기녀시조에 나타난 문학치료적 효과 - 그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8,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김상진, 「시조의 문학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 16·17세기 강호시조를 대상으로-」, 『시조학논총』 26, 한국시조학회, 2007; 김상진, 「송암 권호문의 <한거십팔곡>과 문학치료」, 『한국시가연구』 22, 한국시가학회, 2007.

4)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7;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증보판, 민음사, 1994; 정운채, 『문학 치료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치료사, 2006.

5) 정운채의 문학치료학은 ‘epic을 서사로 규정’함으로써 이론적 모호성을 내포한다. 나아가 자기서사, 작품서사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서사 층위가 교착되는 문제를 기증시킨다. 김상진 역시 자기서사, 작품서사의 개념을 원용하며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홍재범은 자기 이야기self-story와 자기 서사self-narrative의 구도 속에서 이를 설명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상진의 논의를 빌려오되 홍재범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사의 개념을 수정하여 문학치료적 배경을 전개하고자 한다. (정운채, 『문학 치료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치료사, 2006; 김상진, 「시조의 문학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 16·17세기 강호시조를 대상으로-」, 『시조학논총』 26, 한국시조학회, 2007; 홍재범, 「이야기와 서사의 상관관계」, 『겨레어문학』 62, 겨레어문학회, 2019.)

언록』의 작자 김이익은 정조의 승하와 기근이라는 죄명 속에서 유배를 떠나 직접적인 심리적 장애를 겪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합하다.

『금강영언록』은 진도 금갑도로 유배를 떠난 김이익이 1802년 8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 창작한 시조집이다. 앞서 창작된 가사 「금강중용도가」에서 격한 감정이 두드러진 데 비해 『금강영언록』에서는 다소 누그러진 감정이 나타난다. 정인숙은 이를 시조 속 단형의 형식적 측면에 주목하여 “속내가 잘 드러날 수 있었으며, 일상의 소소한 감정을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격한 감정도 다소 누그러지고 보다 현실적인 상황 판단도 드러날 수 있었다.”⁶⁾라고 이야기한다. 『금강영언록』만 두고 보아도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소재들은 김이익의 정서상 변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금강영언록』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변화에서 그것이 지닌 치유적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김이익이 유배지에서 창작한 『금강영언록』 연군 소재 시조를 대상으로 시조 창작의 치유적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배의 맥락 속 시조 창작의 배경을 살펴보고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유배시조를 재해석하여 김이익이 정조의 승하와 유배라는 상흔을 회복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 안동 김문의 삶과 금갑도 유배

김이익은 김상헌의 자손이자 김창업의 증손으로 서울 장동에서 태어났다.⁷⁾

6) 정인숙, 「유와 김이익의 『금강영언록』의 특징과 그 의미」, 『반교어문연구』 43, 반교어문학회, 2016, 254쪽.

7) 김상헌에서 김이익 항렬까지 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상헌- 김광찬 - 김수증
 김수홍
 김수형- 김창집
 - 김창협

김이익의 본관인 안동 김문⁹⁾은 19세기 전반기 세도정치를 이끌었으며, 이 가문 출신의 학자와 문인은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고문으로서 이름을 날린 김상용·김상헌 형제는 각각 11수와 19수의 시조를 남겼다. 이어 김상헌의 손자인 김수증과 김수항, 김수홍은 서예와 문장 등의 분야에서 활약했다고 전해진다. 이른바 육창으로 불리었던 김수항의 여섯 아들은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그중 김창흡의 6수의 시조와 1편의 가사 염불가, 김창업의 3수의 시조 및 국문으로 <노가재연행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김인겸은 사행가사인 일동장유가를 창작하였다.¹⁰⁾ 세대를 통해 전해지던 집안의 국문학적 풍토가 김이익의 국문 시가 창작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동 김문이 19세기 전반기에 세도정치의 주역이었다는 기록은, 이 가문이 당시 정치적으로 유력한 세력이었음을 보여준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 서인의 중추로서 활동한 김상용과 김상헌 형제,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용, 척화파의 영수로 활약한 김상헌의 영향으로 안동 김문은 절개와 의리의 표본이 되었다. 봉당정치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김수증·김수홍·김수항 등의 활동으로 안동 김문은 정치적 핵심이 되었다. 하지만 기사환국으로 인해 김수항은 진도로 유배된 후 사사되었고, 그의 맏아들인 김창집은 임인옥사로 인해 거제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성주에서 사사되었으며, 김창집의 아들 김제겸은

-
- 김창흡
 - 김창업- 김우겸 - 김유행 - 김이홍
 - 김창즙 - 김이인
 - 김창립 - 김이익*

- 8) 김이익의 가문적 배경과 급급도 유배에 대한 서술은 강성주의 석사논문을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강성주, 「유와 김이익의 유배시조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20.)
- 9) 김이익의 본관 안동김씨는 정확히 말해 신라말 고려 초 안동의 호족이었던 김선평을 시조로 하는 신안동 김씨를 말한다. 이 본관 가운데 김번의 가계가 16세기 중반이후 서울 인왕산과 백악산 사이, 이른바 청풍계와 장동일대에 정착하였다. 서울에 정착한 김번의 후손들은 이른바 ‘장동 김씨’라고도 부른다. (이경구, 「유와 김이익의 생애와 활동」, 『금강계몽』,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9쪽.)
- 10) 이상보, 「유와 김이익의 시가 연구」, 『어문학논집』 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7, 14-15쪽.

울산에 유배되었으나 이후 함경북도 부령으로 이배되어 사형당했다. 김창집의 손자였던 김성행은 형문을 받다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김이익의 조부 김우겸과 부친 김유행은 신축환국과 임인옥사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행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안동 김문의 인사 중 대부분은 수십년 동안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 이후 정조가 즉위하면서 안동 김문은 다시금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다. 안동 김문에 대해 “절의, 문장, 도학”이라 평가할 만큼 우호적이었던 정조는 영조가 즉위하기 전 사망하였던 김창집을 영조의 묘정으로 배향시키기도 하였다.¹¹⁾ 정조에 의해 김창집이 충신으로 다시 평가받고 권위를 회복함으로써 안동 김문의 정계 진출이 다시 활발해졌으며,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김이익이다.

김이익은 안동부사를 비롯한 요직을 직임하며 시파의 영수로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정조 승하 이후, 수렴청정을 하게 된 정순왕후와 그녀를 따르는 벽파에 의해 김이익은 선왕인 정조를 기망했다는 죄목으로 1800년 12월 25일 금갑도¹²⁾에 정배된다. 김이익의 세 번째 유배 생활에 해당하는 진도 금갑도 유배는 1800년부터 1805년에 이르기까지 총 6년 동안 이어졌다.¹³⁾ 김이익이 절해의 고도인 진도 금갑도에 원배되었다는 것은 그가 중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금갑도는 한반도의 남서부 끝에 자리한 섬인 진도의 남

11) 김창집은 경종대 영조의 세제 책봉에 공을 세웠지만, 영조를 실제로 섬긴 적은 없었다. 따라서 정조의 조치는 매우 파격적이었고, 김창집 등의 행위를 국가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충절이었음을 공인한 셈이었다. (이경구, 「유와 김이익의 생애와 활동」, 『금강계몽』,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13쪽.)

12)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에 있는 섬이다. 원래 갑도라 불리기도 하였으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의신면 남단의 금갑리와 마주 닿아 있어 접도로 개칭하였다. 접섬, 접배도라 고도 불린다. 조선 시대 전기에 수군만호진이 설치되었고, 진성이 축조되었다. 주요 유배지 가운데 하나였다. (박명희, 『역해 은파유필』, 온샘, 2020, 56쪽.)

13)	시기	유배지
1차 유배	1788년 3월 12일 ~ 1789년 1월 11일	이성
2차 유배	1793년 2월 21일 ~ 1793년 6월 16일	철산부
3차 유배	1800년 12월 25일 ~ 1805년 7월 26일	진도 금갑도

동 지역에 속해있는데, 사방이 바다로 가로막혀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었다. 금갑도에 유배되어 『적소일기』를 기록한 김약행은 금갑도를 해충이 들끓고 주식 생활이 어려우며, 물과 기후가 달라서 병을 얻기 쉬운 곳으로 묘사하였다.¹⁴⁾ 진도는 한반도 남쪽 해안지역으로 조태채는 이곳의 풍습이 토속적으로 무당을 가까이하여 의약을 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왕화가 미치지 않아 내륙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또한, 김이익이 받은 형벌인 위리안치는 높은 나무 울타리를 집 주위에 두르고 문에 자물쇠를 채우며, 바깥으로는 가시나무로 된 울타리를 쳐서 바깥과 격리되게 만들었다. 안치는 왕족 또는 고위직에 있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는데, 위리안치는 거주지를 제한시키기 위해 울타리를 두르는 더욱 가혹한 형태였다.¹⁵⁾ 특히 1801년 11월 12일에 받게 된 천극의 형률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처럼 안동 김문으로 중앙에서 고급관료로 생활하다 진도에 위리안치된 김이익에게 금갑도는 더욱 불안하고 낯설고 힘든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김이익의 고조부인 김수항은 조선 숙종 때 진도로 유배된 후 사사되었으며, 정조 때 진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사망한 김약행도 안동 김문의 사람이다.¹⁶⁾ 정치적으로 유력하였던 가문이었지만 절해의 고도인 진도로 유배되어 생을 마감한 집안 어른들의 전례는 김이익의 유배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했을 것이다.

3. 『금강영언록』 속 치유의 과정

김이익은 유배 가기 전날 꿈에서 정조를 만나 “금강중(金剛中)”이라는 세

14) 이옥희, 「조선 후기 유배인과 유배지의 실상, 김약행의 『적소일기』 연구」, 『국학연구논총』 7, 태민국학연구원, 2011, 276-277쪽.

15) 이종득, 「조선전기 위리안치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34쪽.

16) 이옥희, 「섬 밖에서 온 유배인과 섬 안 지식인의 만남」, 『해양문화연구』 8,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2, 383쪽.

글자를 얻은 뒤, 유배지에서 『주역』과 『중용』을 얻어 읽고, <중용도>와 「금강중용도가」를 창작한 이후 김이익은 1802년 8월 11일부터 9월 8일 유배지에 도착해 2년여라는 시간이 지난 뒤,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금강영언록』을 창작하였다. 김이익은 창작 배경을 『금강영언록』의 서문인 <금강영언록소서>를 통해 자세히 밝힌다. <금강영언록소서>에서 『금강영언록』은 이전의 정조의 국상으로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 마음을 쓰고, 통곡하는 뜻에서 창작한 작품들과 달리 소일거리가 없어 몇 창작한 곡조의 단가임을 밝히며 다소 변화된 감정에서 창작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¹⁷⁾ 또한, “모두 내 속마음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다. 그러기에 어찌 격조와 음향을 따져 버리고 거두어 둘 것을 논하겠는가. 이에 수시로 얻고 수시로 기록함에 또한 순서도 없다”¹⁸⁾라며 유배 일상 속 다양한 경험을 솔직한 감정으로 담아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성 유배 시기 창작한 『관성잡록』에서는 ‘연군’, ‘자조’와 같이 시조를 주제별로 묶었던 것과 달리 『금강영언록』에서는 번호만을 표기하였다. 『금강영언록』의 전체 작품은 중간중간 주제가 이어지는 작품들이 나타나 부분적으로 연속성을 찾아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작품의 주제가 섞여 제시된다는 점에서 일련의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배치한 것이 아닌 창작의 순서대로 수록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작품의 소재에 있어서는, 특정 소재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양상이 나타났다.¹⁹⁾ 50수 작품들은 각각 단절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텍스트이지만,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주제와 소재를 통해 묶이게 되면 하나의 계

17) “余以哀寃之慘 衰病之喘 猶不遑朗讀默誦 況時詩之云而詠之乎 況歌之云而唱之乎 又況國制未闕 八域邊密之時乎 唯以義經思傳之奉觀瞻寫 時附一得爲日夕萬心之資 今於中庸圖已成之餘 始作歌詞數百言 亦出甚於慟哭之意也 繼以有疾委席已過數朔 眼眩手戰 久廢翫寫 無賴尙遣偶成數聲短歌” 김이익, 『금강영언록』, <금강영언록소서>.

18) “轉轉不些則皆出吾腔 奚論格調音響而不收而有之乎 茲以隨得隨錄 亦無彙序” 김이익, 『금강영언록』, <금강영언록소서>.

19) 반복적 조작은 인간의 무의식 깊숙이 박혀 있는 원초적 상흔을 묘사하고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아버지의 금지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박적 반복 충동을 갖는다고 한다. … (중략) … 그래서 이런 반복장치는 문학에서 심리적 욕구의 변형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7, 199쪽.)

기적 서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²⁰⁾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리적 갈등의 원인인 선왕에 대한 ‘연군의식’을 드러낸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문학치료 관점에 따라 『금강영언록』 속 ‘연군’ 소재의 작품들을 ‘진단 단계-해소 단계-회복 단계’²¹⁾로 분류하고 갈등과 치유의 양상을 살피고 그 치유의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진단 및 표면화 단계

앞서 언급하였듯 문학치료는 문학 텍스트의 창작 혹은 수용을 통해 심리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소극적인 기능으로써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고통이나 외상을 표면화하는 것 역시 넓은 범위의 문학치료라 할 수 있다. 『금강영언록』에서 김이익은 표면적으로는 그의 갈등을 정조의 죽음이나 유배의 현실에서 찾았으나, 그의 진정한 심리적 장애는 ‘기군’이라는 죄명으로 인해 총질로 대변되는 안동 김문의 의리를 훼손하고 “군신간의 의리를 순절로 구현한다는 신념을 방기해서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어 자아를 상실”²²⁾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 20) 『금강영언록』 소재 시조는 한 작품 내에 여러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많아, 연구자들에 따라 그 분류의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주제로 연군, 자탄, 독서, 경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 21) 김상진은 문학치료의 진행 과정을 표현 및 진단, 해소 단계, 회복의 단계로 설정하고, 카타르시스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소 단계를 ‘갈등에 직면하기’와 ‘안정에 도달하기’ 구분하여 문학치료의 과정과 단계를 설정하였다. 진단단계는 고통이나 외상이 불명료하게 떠오르며 이를 표면화시키는 단계, 해소단계는 갈등과 직면하는 단계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진술하며 나아가 그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단계, 회복단계는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찾는 단계이다. 본고에서는 김상진이 제시한 문학치료의 과정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김상진, 「시조의 문학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16·17세기 강호시조를 대상으로-」, 『시조학논총』 26, 한국시조학회, 2007; 김상진, 「송암 권호문의 <한거십팔곡>과 문학치료」, 『한국시가연구』 22, 한국시가학회, 2007.)
- 22) 박찬수, 「『금강중용도가』 내용적 특질과 함의」, 『한국문학과예술』 36, 한국문학과학예술연구소, 2020, 197쪽.

老病(노병)흔 이 내 몸이 罪名(죄명)조차 至重(지중)하니
 棘中日月(극중일월)의 一萬念慮(일만념례) 촌지긋다
 그러코 蒼梧山(창오산) 먼 구름의 피눈물은 므스 일고

<금강 3>²³⁾

사라도 先王臣下(선왕신하) 죽어도 先王臣下(선왕신하)
 스랑흠다 先王(선왕)의 아드님 卽今吾君(즉금오군)
 내 비록 罪名(죄명)은 至重(지중)하니 이 므옵이야 變(변)홀손가

<금강 4>

六十(육십)이 긋되어서 萬古風霜(만고풍상) 다 긋그니
 塵世間(진세간) 苦樂(고락)이 우원 므스 긋시련고
 다만지 우리 님 보옵고 시버 일노 병(病)이 되어스라

<금강 9>

금강 3번은 위리안치라는 공간적 배경과 ‘노병’ ‘죄명조차 지중’, ‘일만념례’와 같이 보다 직접적으로 고통적인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엄중한 유배의 현실 속 자신의 늙고 병든 신체와 죄명을 돌아보며 정신적 상처를 표면화한다. 종장에서는 순왕이 죽은 창오산을 통해 승하한 정조를 떠올리며 ‘피눈물’과 같은 표현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표출한다.

금강 4번의 죽어서도 살아서도 선왕인 정조의 신하임을 밝히는 화자의 태도는 「금강중용도가」에서 “이려도 선왕 은혜 저려도 선왕 은혜”라며 어떠한 유배의 고통적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신경 쓰지 아니하며 선왕을 향해 충정을 다할 것을 표출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²⁴⁾ 이러한 화자의 충심은 ‘즉금오군’,

23) 본고에서 인용한 시조 작품은 모두 김이익, 『금강영언록』(『향토연구』 1, 충남향토연구회, 1985.)에 의한다. ‘금강’은 『금강영언록』을 말한다. 뒤의 번호는 책에 실린 순번을 가리킨다.

24) 만일 그 꿈 안이런들 주역중용 심각이나 흐며 萬一非其夢 周易中庸思之乎/ 만일 이 곳 안이런들 이 공부를 엇지흐리 萬一非此處 此工夫何爲也/이려도 선왕 은혜 저려도 선왕 은혜 此亦 先王恩惠 彼亦 先王恩惠 (박찬수, 「해제 「금강중용도가」에 대하여」, 『한국문학과예술』 36,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0, 364쪽.)

곧 선왕의 아들인 순조로 이어진다. 하지만 종장에서는 굳건한 태도와는 다르게 ‘죄명이 지중’하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갈등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금강 9번에서는 제거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병’이라는 대상을 제시하며 치료의 대상을 구체화한다.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가 ‘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진단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화자는 6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겪었기에, 더 이상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달관의 태도를 견지한다. 그럼에도 종장에 이르러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병이 생겨났음을 강조하며 표면적으로 유배로 인한 외상과 고통을 표출하고 있다.

豐年(풍년)은 허마다 들고 輪行癘疫(륜형녀역)은 아조 가니
 朝鮮國(조선국) 百萬生靈(백만생령)이 새 德化(덕화)를 歌詠(가영)한다
 너히는 先王明靈(선왕명령)이 돕궤오셔 그런 줄노 아라스라
 <금강 10>

望美人兮(망미인혜) 何在(하지)오 目渺渺兮(목묘묘혜) 天一方(천일방)을
 夫何使我(부하스아)로 懷耿結兮(회경결혜) 如醉如狂(여취여광)고
 孤臣兮(고신혜) 作此歌兮(작츠가혜) 瞻月光(첨월광)하야 願後見兮(원부견혜)
 吾王(오왕)호노이다.

<금강15>

朝窓(도창)의 허 도드니 玉壺清冰(옥호청빙) 더욱 맑다
 흥 점 찢글 엮는 속의 불근 조각 못쳐시니
 萬一(만일)에 이 조각 엮스면 瓦罇濁醪(와준탁료)만인들 훑가보나
 <금강 16>

다음의 세 작품에서는 진거와 송도를 통해 유배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방향적인 정조에 대한 충심을 그리고 있다. 금강 10번에서 태평한 세상 속 백성들은 새로운 덕화를 노래한다. 화자는 이러한 태평함이 모두 죽은 선왕이 도왔기 때문이라 말하며 직접적으로 정조를 언급하면서 그를 송도한다. 그 시

대를 태평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송도이다. 군주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권력 실세를 추구하는 정치 행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송도의 방식을 사용한다.²⁵⁾ 하지만 송도의 대상은 승하한 정조이며, 김이의 역시 유배인의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불사이군, 일편단심으로 대변되는 유가적 규범과 달리 임금에게 충을 배반한 죄인으로서 존재하는 현실 속 불안감은 앞의 송도와 앞선 충절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금강 15번은 소식의 <전적벽부(前赤壁賦)> 속 “나의 마음은 아득하고 아득하게, 하늘 한쪽 끝에서 미인을 바라본다.(渺渺兮余懷 望美人兮天一方)”를 전거로 하여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종장에서 외로운 신하로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함과 동시에, 달빛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었다며 창작 이유를 밝힌다. 정조는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를 통해 군주는 ‘달’로, 신민은 달빛을 받아 존재를 드러내는 시냇물로 제시하며 그 관계를 밝힌 바 있다. 화자는 정조로 표상되는 달빛을 바라보며,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임금을 다시 만나기를 염원한다.

금강 16번 역시 유배의 현실 속 임금에 대한 충절을 강조하고 있다. 화자는 왕창령이 편적되어 쓴 작품인 <부용루송신점(芙蓉樓送辛漸)>의 “낙양의 친구가 만약 묻거든, 한 조각 얼음같이 맑은 맘이 옥병에 있다 하계.(洛陽親友如相問 一片冰心在玉壺)”는 구절을 전거로 하여 자신의 지조를 초장에서 밝히고 있다. 종장과 종장에서는 ‘붉은 조각’이 맺혔기에 탁료보다 더 나은 가치를 지닌다며 유배지에서의 고결한 지조 속 일편단심의 충심을 밝히고 있다.

2) 해소 단계

문학치료의 두 번째 단계는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로, 문학치료의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양상을 띠는 핵심적 부분이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편의 작품을 통해 점차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데, 해소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작품들을

25) 전제강, 『시조문학의 이념과 풍류』, 보고서, 2008, 142쪽.

또다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서술하여 갈등과 직면함으로써 해소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이에 더 나아가 갈등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심리적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해소하는 단계이다. 갈등의 해소라는 기능은 공통적이지만 그 과정상의 차이를 통해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정화이론, 두 번째는 조정이론에 근거를 둔다.

이 이론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제시한 ‘카타르시스’에 관한 내용을 해석하는 데서 발생하였다. 정화이론은 카타르시스에 대하여 갈등 상황을 스스로 떠올리면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수용하는 과정, 즉 동류요법을 통해 이르는 상태라 말하였다. 한편, 조정이론에서는 갈등 상황과 그로 인한 감정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통제와 조정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였을 때 카타르시스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1) 갈등에 직면하기

世上(세상)의 괴로운 일 밤잠 업서 큰 病(병)일다
 늘근의 例常(례상) 일을 내라고 면홀소나
 卽今(즉금)의 님 思量 自別(즈별)하니 잠든 후나 닛즈올가 흐노라
 <금강 17>

잠들기 願(원)치 마소 잠 속의 惝이 잇고
 惝 속의는 우리 님 分明(분명)히 비시논이
 卽 後의 虛事(허스)가 되니 그때 思量 더욱 懇切(곤절)하여스라
 <금강 18>

죽어도 못닛줄 일 君親(군친)의 恩惠(은혜)로다
 父母(부모)가 날 스랑히시기는 例事(례시)웁거니와
 님군이 子息(조식)갓치 보시던 恩德(은덕)은 더욱 罔極(망극)하여라
 <금강 19>

돌은 높히 쓰고 바람은 느리부니

三千大界(삼천대계)의 一點塵埃(일점진익) 아조 업니
 아마도 저 들빛치 孤臣腔裏(고신강니)에도 빛최는가 호노라
 <금강 25>

<금강영언록소서>에서 수시로 기록하였기에 순서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금강영언록』에 수록된 작품은 마치 연작 시조와 같이 내용상 몇 수씩 연결되어 나열되는 경우가 발견된다.²⁶⁾ 특히 17번, 18번, 19번은 정조를 꿈에서 만나기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일련의 작품들이다. 이 세 수의 시조는 「금강중용도가」, 속선왕과의 몽중재회 경험과 연관해서 볼 때 의미가 명확해진다. 김이익은 유배를 떠나기 5~6일 전 서거한 정조를 꿈에서 만난 경험을 「금강중용도가」를 비롯한 여러 저술에서 이야기한다. 김이익은 꿈속에서 정조를 만나 ‘금강중’이 쓰인 약봉투를 받은 후 다정한 군신 관계 속 시간을 보내고 꿈에서 깨어난다. 꿈에서 깨어난 김이익은 현실 속 임금의 부재를 다시금 느끼며 “흰 벼개의 업드리니 피눈물 절노나니”라며 상실과 고통을 노래한다.²⁷⁾ 『금강영언록』에서는 몽중재회라는 동일한 경험을 다소 다른 형태의 자기 서사로 전환하여 표현하고 있다.

금강 17번의 화자는 불면의 고통을 호소한다. 60세라는 노년의 상태이기에 이러한 불면은 피할 수 없이 늘상 겪는 일반적인 상태임을 언급한다. 하지만 종장에서 불면의 순리를 따르고, 달관하고자 하는 태도는 반전된다. 입에 대한 상사에서 오는 불면의 고통은 잠이 들어야 벗어날 수 있는 특수한 대상, 곧 병

26) 정인숙, 「유와 김이익의 『금강영언록』의 특징과 그 의미」, 『반교어문연구』 43, 반교어문학회, 2016, 240쪽.

27) 이 희 남월 새벽 꿈은 어이 그리 정녕된고 是歲臘月曉夢 何爲其丁寧/거동소의 입시하니 천신 호나 쓴이로되 舉動所入侍 賤臣一介已矣/ 용안은 이열호시오고 옥음은 춘음호소서 龍顏怡悅 玉音春溫/ 전석중용 상시모양 가인부조 더욱 又 前席從容常時貌樣 家人父子 尤似之/ 룡포로 약을 내사 어수로 주오시니 龍袍出藥 御手賜之/ 봉피 우희 세 촛 쓴 것 금강강이 분명하다 封皮上三字書 金中剛分明/ 괴복하여 맞조와 관복 속의 너흔 연후 起伏受之 官服裡納然後/ 상하수작 다소광경 그 어이 다 괴복홀이 上下酬酢多少光景 其何以盡記/ 환궁거동 지송호고 꿈을 문득 지야나니 還宮舉動祇送 夢於是覺/ 새벽 들빛 창냥호던 니웃 둘이 자조 우니 曉月蒼涼 隣鷄頻唱/ 흰 벼개의 업드리니 피눈물 절노 느니 素枕伏泣 血淚自出 (박찬수, 「해제 「금강중용도가」에 대하여」, 『한국문화과예술』 36,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20, 360쪽.)

으로 표현된다. 노년의 불면은 예사로운 일이기에 따를 수 있으나 상사로 인한 불면은 해소와 극복의 대상이다.

금강 18번에서는 오히려 ‘잠 속에 꿈이 있고 꿈속에 임이 있기’에 잠을 청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현실에 부재한 선왕을 만나는 일은 기쁘나, 그 꿈을 깬 후 상실의 감정으로 한층 더 그리움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강 17번에서 임의 생각을 잊고자 잠을 청하던 화자의 태도와는 대비된다. 임을 잊고자 잠을 청하였으나 잠 속에 다시금 임을 만나는 과정은 더욱 상실감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금강 19번에서는 「금강중용도가」의 서사와는 다르게 몽중재회 이후 정다운 군신의 관계를 강조한다. 나아가 군신의 관계를 부자 사이의 도리와 대치함으로써 금강 17번과 18번에서 나타나는 역설적인 태도와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승하한 정조는 절대적 존군의 대상이지만 김이익이 ‘기군’이라는 죄명을 가지고 유배를 떠났으며 스스로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면모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기에, 선왕은 더욱이 회한과 심리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하지만 정조는 승하한 상태였기에 이러한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몽중재회라는 경험을 불러들여, 이전과는 다른 자기 서사를 통해 갈등에 직면하고 이를 해소하려 한다. 갈등에 직면한 뒤 해소하려 하는 모습은 금강 25번에서 보다 구체화 되어 나타난다.

금강 25번에서 화자는 먼지를 날리는 바람과 높게 뜬 달이 온 세상을 밝히는 것을 보며, 달빛이 외로운 신하의 가슴에도 비치는가 되묻는다. 금강 10번에서와같이 ‘고신’, ‘달빛’과 같은 시어를 사용해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지만 달빛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는 금강 10번의 화자와는 달리 금강 25번의 화자는 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달빛이 객관화된 화자에게 직접 비치기를 희구한다. 하지만 확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의문형으로 시상을 끝마친다. 이처럼 갈등에 직면하기 단계에서 화자는 다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완전한 해소에 이르지 못하기도 하나 갈등에 직면하여 자신의 마음이 추구하는 바를 인식하고, 회복된 자아를 통해 진단 및 표면화 단계에서 보다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2) 안정에 도달하기

못노라 저 漁翁(어옹)아 자네 낚근 고기 속의
屈三閭(굴삼녀) 忠魂(충혼)이 드렸는가 아니 드린는가
이 後(후)란 큰 고기 낚기이거든 브디 노코 오나스라

<금강 38>

人生(인생)은 씬결이오 世事(세사)는 물결갓다
귀 밧피 온갖 말이 바람결의 지나가디
즘결의 님 뵈옵는 精誠(정성)은 미줄결인가 흐노라

<금강 44>

謫中(적중)의 어든 것시 周易中庸(듀역중용) 두 글일다
淇輿(괴육)의 綠竹(녹죽)으로 書箱(서상) 하니 걸어내니
萬一(만일)에 生還故國(싱환고국)흐면 藉手事君(자슈스군)을 일노 흘가 흐노라

<금강 45>

上林(상림)의 놀난 기력이 南方(남방)으로 느라완지
벌서 三年(삼년)의 놀을 싱각흐고 미양 우지지니
어느새 靈囿(영유)로 도라드러 넷가지의 다시 의지홀넉고

<금강 48>

금강 38번은 굴원의 고사를 통해 충절을 밝히고 있는데, 정철 작품과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다.²⁸⁾ 이는 안동 김문이 정철의 시가를 애호하는 분위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²⁹⁾ 뿐만 아니라 정철의 시가 속 연군의 심

28) 楚 초강장 漁어夫부들아 곡이 낙가 숨지 말아/ 屈굴삼삼閭녀의 冤원恨혼이 드렸나니 魚어 腹복 中중의/ 삼기는 살뜨려이와 忠충魂혼혼조차 삼길쇼냐 (정철, 『송강가사』, 김갑기 옮김, 지식출판드레지식, 2012, 142쪽.)

29) 김춘택의 기록에서 김상헌은 정철의 시가를 애칭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으며, 김창협과 김창흠 또한 정철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있다. 정철의 시가를 즐겨 부르는 가운데 서인계 문인

회는 절도에 위리안치된 유배인이었던 자신에게 공감을 일으켰으리라 판단된다. 정철 역시 동인의 탄핵으로 명천, 진주, 강계에서 고단한 유배를 겪었을 뿐 아니라, 강계로 이배된 당시 위리안치 속에서 『통감절요』와 『대학』을 반복하여 통독한 바 있다.³⁰⁾ 이에 위리안치 속 『주역』과 『중용』을 수 차례 독서하였던 김이익에게 있어 굴원의 모습을 그린 정철의 작품을 수용하여 창작하는 과정은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이었다.

금강 44번에서는 유배의 현실을 달관한 듯한 태도를 보인다. 여전히 금강도라는 절해고도에 놓여있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맥락은 자연스레 흘러가는 속성을 가진 꿈결, 물결, 바람결로 치환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은 ‘맺을 걸’로 운자를 맞추며 꿈속에서 입을 만나 뱉는 것으로 시상을 정리한다. 이전의 작품들에서 꿈에서 입을 만나는 몽중재회가 병이 될 만큼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것과 달리, 흘러가는 세상사 속에서 잠결에 만난 입에 대한 마음 역시 흘러감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흐름을 화자 스스로 멈추고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

금강 45번에서 화자는 『주역』과 『중용』을 얻어 독서한 과정을 상기하며, 『주역』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해배와 정치적 복권까지 회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김이익은 『주역』을 공부하며 정조와의 몽중재회를 재해석한다.³¹⁾ 단순히 승하한 선왕을 꿈에서 만나 과거의 도타운 군신 간의 기억을 회상하는 일장춘몽이 아

들이 이러한 표현방식에 익숙해지고, 이를 모방하여 작품을 짓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안동 김문에 송강을 애호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김진희, 「17세기 사대부 연정시조」, 『정기학술발표회논문집』 49, 한국시가학회, 2008, 55-59쪽 참고)

30) 二月初四日節要十三遍 自前年至月之此又一遍 壬辰正月在江界圍籬 二月十三日始讀大學 三月廿三日長籬幾彼風倒太半屈曲 四月廿八日夢作昭代收遺直天堦曉鐘鳥是日蒙放 五月朔三日復職恩召十四日行京城沒痛哭痛哭初 (밑줄 필자) 정철, 『송강선조유필』.

31) 홀연 생각 전년 꿈을 내 스스로 획득하니 忽然思之前年夢 吾自得/ 금강도 가운데 혼자 안자 강유지니 귀경흠을 金甲島中獨坐 剛柔之理甌見/ 선왕이 권념하샤 미리 아니 니르신가 先王眷念 其非預告之乎/ 이리저리 생각하니 춤아 엇지 니줄손가 此而彼而思之 何忍忘乎哉/ 금강 두 즈 가져다가 칩마다 제목하야 金剛二字持來 隨冊以此題目/ 이 내 믿음 부쳐 두고 쯔나 자나 보려더니 此吾心寓置 寤寐欲見 (박찬수, 「해제 「금강중용도가」에 대하여」, 『한국문화과예술』 36,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20, 361쪽.)

닌, “학문 연구를 수행하는 충성의 행위로 자각”³²⁾하게 된다. 일련의 경서의 독서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바탕이 되어 이전 작품들에서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을 보이던 모습과 달리 상당히 여유 있고 나아가 사명감마저 띤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 유배의 상황을 벗어나 살아서 돌아갈 것을 가정할 만큼 자아가 회복된 모습을 보인다.

금강 48번에서 화자는 자신을 기러기에 빗대어 시상을 전개한다. 장안의 궁원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기러기를 통해 최남단에 위치한 금강도로 유배 온 현실을 형상화한다. 종장과 종장에서 삼 년째 누구를 생각하고 우짖는다면, 유배지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다시금 궁궐로 돌아가고자 한다. 앞의 작품들에 비해 다소 완화되고 안정된 정서를 보이며, 해배와 복권에 대한 바람이 나타날 정도로 이전의 갈등에서 해소된 모습이 나타난다.

3) 회복 단계

해소 단계에서 갈등을 직면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된 화자는 회복 단계로 나아간다. 이 단계에서 화자는 갈등의 상태를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명료하게 표현함으로써 회복 상태에 이르게 된다.³³⁾ 금강 53번, 54번에 이르기까지 문학치료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회복 단계이다. 여기서 화자는 더 이상 ‘기군’이라는 죄명이나 배은한 신하로서 갈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금강 45번과 48번의 종장에서 ‘생환고국’과 ‘영유’로 표현한 해배나 복권에 대한 기대 속 심리적 갈등을 보이지 않으며 선왕에 대한 명료한 정서를 표출한다.

32) 박찬수, 「『금강중용도가』 내용적 특질과 함의」, 『한국문화과학예술훈구소』 2020, 201쪽.

33) 이는 명징이론에 근거를 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에 대한 논의에서 나온 또 다른 주장인 명징이론은 자신이 겪은 부정적인 상황이나 그로 인한 감정을 묘사함으로써 명징화를 성취하고, 이를 통해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김상진은 이러한 해석을 평온과 무심을 구가하는 회복의 단계에서 거두는 문학치료의 효과와 유사하다 언급한 바 있다. (김상진, 「시조의 문학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 16-17세기 강호시조를 대상으로-」, 『시조학논총』 26, 한국시조학회, 2007, 45쪽.)

달이 새거나 불서 꺾소리 반갑고나
곱씨인 눈을 찌스며 문열고 우러어 보니
白日(백일)이 扶桑(부상)을 떠나면서 棘籬(극니)의 비취엇더라

<금강 53>

冊(책) 덮고 嘆息(탄식)흔 後(후) 向壁(향벽)하여 누엇더니
벼개아래 潮水聲(도수성)이 드는 즘을 찌오거다
들빚히 하 多情(다정)하니 질노 니러안자세라

<금강 54>

금강 53번과 54번은 순행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임금을 표상하는 해와 달이 화자가 위치한 장소까지 다다르고 있다. 금강 53번에서 화자는 까치 소리를 반가워하며 아침을 맞이한다. 화자가 눈곱을 떼고 문을 열자, 햇빛이 유리안치의 형으로 인해 둘러쳐진 가시 울타리에 다다른다. 금강 54번에서 화자는 독서를 마치고 방에 누워 잠을 청한다. 이내 곧 밀려오는 조수의 소리가 잠을 깨우고 달빛은 화자에게 다정히 내려온다. 이전까지 햇빛과 달빛은 화자가 위치한 장소까지 다다르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이거나 염원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기다리며, 다시금 임에게 다다르고자 진전공공하였던 태도와는 달리, 이제 임을 표상하는 해와 달은 유배지까지 내려온다. 화자는 온 세상을 비추는 달빛, 사표로서 존재하는 정조를 직면하면서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정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4. 유배시조의 문학치료적 효과

김이익은 유배 체험과 선왕과의 몽중재회, 『주역』과 『중용』의 독서 경험을 시조를 사용해 자기 서사로 전환한다. 이러한 서사화를 통해 그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상흔이 치유되는 과정이 드러났다. 김이익은 시조의 창작을 통해 시 치

료, 더 정확하게는 시 쓰기 치료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학치료적 관점에 따라 ‘진단-해소-회복’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금강영언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연군 소재 시조에서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변화되는 감정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진단 단계에서 화자는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고통이나 외상을 표면화한다. 특징적 양상을 보면 ‘죄명이 지중’, ‘피눈물’, ‘병’과 같은 시어를 통해 ‘기군’이라는 죄명으로 입을 심리적 외상을 전면에 들어내고 현재의 상태를 화자 스스로 진단한다. 나아가 편적당한 선인들의 전고를 활용하여 유배객으로서 작자의 척박한 심사를 고조시킨다.

해소 단계에서는 먼저, 화자는 갈등의 상황을 직면하고 수용하고자 한다. 이는 김이익의 저서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선왕과의 몽중재회의 경험과 ‘꿈’이라는 소재에 대한 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노년의 불면은 예삿일로 여기나 상사의 불면은 극복해야 하는 고통이기에 잠을 청하였으나(17번), 꿈에서 깨면 임과 다시금 이별하기에 잠을 자는 행위를 원치 않는 역설 속에서 화자는 갈등한다(18번). 하지만 꿈속에서 선왕을 만나 부자의 관계만큼 깊은 군신의 관계를 확인하고 해소된다(19번). 꿈속에서 선왕을 만나고 군신 간의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꿈속에서 깨어 상실감을 표출하였던 『금강중용도가』에서의 서사와는 다른 형태로 선왕과의 몽중재회를 그리고 있다. 이는 갈등을 직면하고 이를 해소하는 양상이자 치유의 표지로 작용한다. 몽중재회 이후, 화자는 갈등을 통제하고 심리적 안정과 조화를 되찾는다. 굴원을 노래한 정철의 시조를 수용하고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통해 내면의 안정을 도모하기도 하며, 유배라는 갈등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정하여 안정을 취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제는 해배와 복권의 의지를 표출할 정도로 안정에 어느 정도 도달한 모습으로 보인다.

회복 단계에서는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사라진 채, 자연과의 조화 속 유배의 공간에 선왕의 표상을 끌어들인다. 특히 ‘달’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에서 이러한 갈등의 해소와 회복의 양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진단 단계에서 나타난 ‘달’은 아득히 멀고 바라만 볼 수 있는 대상이었다.(15번) 해

소 단계에서 ‘달’은 유배지까지 그 빛을 비추기를 바라는 염원과 회구의 대상으로 발전되어 나타난다.(25번) 마침내 회복 단계에서 ‘달’은 물을 비추어 화자를 깨우고, 다정한 달빛으로 유배지에 내려와 화자를 움직이게 한다.(54번) 이처럼 화자의 달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김이익에게 내려진 기군과 배은이라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김이익은 기군과 유배라는 자기 이야기를 <중용도>, 『금강중용도가』를 제작함으로써 그려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금강영언록』이라는 시조집을 정리함으로써 마침내 기군이라는 죄명 속 선왕을 배은한 불충한 신하라는 심리적 갈등을 회복하였다. 『금강영언록』의 창작 이후 김이익은 해배될 때까지 경학서, 교육서 등을 창작하였으나 그의 저작에서는 더 이상 유배의 심리적 갈등이나 고통이 나타나지 않았다.

『금강영언록』의 핵심적인 자기 서사는 화자가 ‘기군이라는 죄명과 유배의 상황으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갈등상태에서, 몽중재회라는 체험을 기점으로 갈등을 점차 해소하고, 마침내 내면을 회복하고 희망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른 유배시조처럼 단순히 연군이나 애처로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몽중체험과 독서의 과정을 통해 자아의 회복에 이른다는 점이 변별적인 점이 주목할만한 점이다.

지금까지 『금강영언록』을 대상으로 유배시조가 어떻게 문학치료의 효과를 지닐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금강영언록』은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진단과 해소의 단계를 거쳐 회복의 단계까지 이르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심적 태세의 변화는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작품 속에서 단계별 치유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던 동시에, 문학치료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이익이 『금강영언록』 창작을 통해 문학치료적 과정을 체험했음을 보여주는 것에 더 나아가 유배시조의 창작이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5. 결론

시조가 지닌 단형의 형식적 측면은 자신의 심적 상황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극단의 상황에 놓여 갈등 속에서 창작하는 유배시조는 더욱 솔직한 개인감정을 표출한다. 그러기에 심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문학의 치유적 기능은 유배시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금강영언록』 소재 시조에서 나타난 연군 의식의 변화는 김이익이 금갑도 유배라는 정치적 위난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다 뚜렷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그는 유배 속 심리적 외상을 시조로 표현함으로써 긴장이 완화되고 정서적 회복을 얻게 된다. 시조라는 문학 자체가 그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김이익이 『주역』과 『중용』의 탐독 및 <금강중용도>, 「금강중용도가」와 『금강계몽』의 창작 및 재독의 과정을 거쳤을 것을 염두에 둔다면 『금강영언록』의 창작은 감상치료, 독서치료의 결과물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실제적인 창작의 측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창작을 통한 작자의 치유에 집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금강영언록』의 변별적 자질과 효과를 논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다루지 못한 『금강영언록』 소재 여타 시조 작품들과의 관계, 「금강중용도가」와의 종합적 고찰 속에서 문학치료적 효과를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이익은 1784년 이성으로 유배를 가 『관성잡록』 속 10수의 유배시조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에 김이익의 다른 유배시조가 가진 치유적 양상과의 비교 또한 다음 과제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다른 유배지에서 다른 작자가 창작한 시조 작품들과 함께 논의의 폭을 넓힌다면 보다 유배시조 전반의 내적 갈등과 치유적 면모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이익, 『금강영언록』, 『향토연구』 1, 충남향토연구회, 1985.
- 정 철, 『송강선조유필』.
- 강성주, 「유와 김이익의 유배시조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20.
- 김상진, 「기녀시조에 나타난 문학치료적 효과 - 그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 언어문화』 28,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UCI : G704-001057.2005..28.015)
- _____, 「시조의 문학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 16·17세기 강호시조를 대상으로-」, 『시조학논총』 26, 한국시조학회, 2007, 45쪽.
(UCI : G704-001211.2007..26.008)
- _____, 「송암 권호문의 <한거십팔곡>과 문학치료」, 『한국시가연구』 22, 한국시 가학회, 2007.
(UCI : G704-000454.2007..22.002)
- 김진희, 「17세기 사대부 연정시조」, 『정기학술발표회논문집』 49, 한국시가학회, 2008, 55~59쪽.
- 박명희, 『역해 은과유필』, 온샘, 2020, 56쪽.
- 박미영, 『한국시가론과 시조관』, 박이정, 2006, 211쪽.
- 박찬수, 「『금강중용도가』 내용적 특질과 함의」, 『한국문학과예술』 36, 한국문학 과예술연구소, 2020, 197, 201쪽.
- _____, 「해제 『금강중용도가』에 대하여」, 『한국문학과예술』 36, 한국문학과예술 연구소, 2020, 360, 361, 364쪽.
-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7, 199쪽.
- 이경규, 「유와 김이익의 생애와 활동」, 『금강계몽』,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9, 13쪽.
- 이상보, 「유와 김이익의 시가 연구」, 『어문학논집』 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7, 14-15쪽.
- 이옥희, 「섬 밖에서 온 유배인과 섬 안 지식인의 만남」, 『해양문화연구』 8, 전남 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2, 383쪽.
- _____, 「조선 후기 유배인과 유배지의 실상, 김약행의 『적소일기』 연구」, 『국학

연구논총』 7, 태민국학연구원, 2011, 276-277쪽.

(UCI : G704-SER000003095.2011..7.007)

이종묵, 「조선전기 위리안치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34쪽.

전재강, 『시조문학의 이념과 풍류』, 보고사, 2008, 142쪽.

정운채, 『문학 치료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치료사, 2006, 29쪽.

정인숙, 「유와 김이익의 『금강영언록』의 특징과 그 의미」, 『반교어문연구』 43, 반교어문학회, 2016, 240, 254쪽.

(UCI : G704-001785.2016..43.009)

정 철, 『송강가사』, 김갑기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142쪽.

홍재범, 「이야기와 서사의 상관관계」, 『겨레어문학』 62, 겨레어문학회, 2019.

| Abstract |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ture Therapy, Exile Sijo - For 『Keumgangyengeunrok』

Kang, Seong-Ju
Chonnam Univ. Ph.D. Stud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healing effect of creating Sijo based on 『Keumgangyengeunrok』.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family background of Kim Yi - ik and the life of exile to Geumgapdo, and reinterpreted Kim Yi - ik's exile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ry therapy to restore the scars of King Jeongjo's death and Kim Yi - ik's exile.

Kim Yi - ik(1743-1830) was exiled to Geumgapdo in Jindo on December 25, 1800 on the charge of deceiving King Jeongjo by Queen Jeongsun and Byeokpa. After that, from August 11 to September 8, 1802, he created a collection of Sijo books 『Keumgangyengeunrok』 in Geumgapdo, Jindo. Unlike 『Gwanseongjabrok』, which were created during the previous exile to Iseong, the themes of the works were mixed and presented, so it can be inferred that the works were not arranged with a series of intentions, but included in the order of creation. In addition, certain materials were repeatedly presented. In view of this, each text forms a disconnected meaning, but if it is grouped through repeatedly presented materials, it can have an instrumental narrative. Therefore, in this article, among all works, works on the theme of yearning for the king were classified as "diagnosis

stage-resolution stage-recovery stage”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literary therapy and reviewed that conflict and healing were revealed.

Furthermore, 『Keumgangyengeunrok』 clearly showed the process of reaching the stage of recovery through the stage of diagnosis and reso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ry therapy.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healing patterns of each stage in the works and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literary therapy. These results further show that Kim Yi - ik experienced the literary therapy process through the creation of 『Keumgangyengeunrok』, and can be said to be an example of proving that the creation of exile Sijo is effe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ry therapy.

Key words : Kim Yi - ik, Keumgangyengeunrok, Literary Therapy